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한계

글 | 백 승 찬

경향신문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시작하며

지하철의 모습을 본다. 한 줄로 앉은 7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간혹 자거나 간혹 멍하니 있지만, 대개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책 읽는 사람은 어디 갔는가. 신문을 읽는 사람은 없는가. 그래도 한때 사람들은 지하철 역사 앞에서 나누어주는 무가지를 손에 들곤 했다. 무가지가 너무 많아 좌석 위 선반에 금세 쌓이곤 했다. 그러나 이제 무가지를 읽는 이는 확연히 줄었다. 종합 일간지를 읽는 이는 더 드물다. 책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중의 손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측면에서 일간지와 책은 비슷한 점이 있다. 물론 신문과 책 모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디지털, 인터넷의 흐름을 타겠다는 것이다. 각 신문사는 인터넷 콘텐츠를 만드는데 열심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접근이 쉬운 길을 찾고 있다. 기자들은 지면용 전통적인 방식의 기사를 쓰느라, 인터넷용의 신속하고 재미있는 기사를 쓰느라, 허둥지둥하고 있다. 출판사들은 전자책 시장에 발을 담갔다. 2~3년전부터 매년 “올해는 전자책 원년”이라고 말했는데, 2012년에는 “진짜 원년”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그러나 신문과 책 모두 아직 새로운 행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진 못하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의 어딘가에서 주춤대면서 길을 찾고 있다. 영상시대를 넘어 디지털 인터랙티브시대에 도착한 활자시대의 유물인 신문은 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신문의 북 섹션

신문은 많은 미디어 중에서도 책을 소개하기에 유용한 통로에 속한다. 텔레비전의 책 소개 프로그램은 천덕꾸러기처럼 평일 한밤중에 배치됐고, 프레시안 등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매체는 책 소개에 많은 공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반면 신문에는 정기적인 북 섹션이 들어있다. 대부분의 중앙 일간지들은 토요일자에 북 섹션을 싣는다. 토요일에는 휴무하는 직장이 많기에, 토요일자는 한 주일 중에서도 열독률이 가장 떨어지는 요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신문은 토요일자에 북 섹션을 배치하는데 여유를 갖는다. 현재 많은 중앙 일간지들은 토요일자에 전날 발생 기사의 게재를 최소화한 뒤, 독특한 인물이나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기획 기사를 배치하는 편집 방침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의 토요일자 지면은 1면부터 평일 지면과는 다른 디자인을 선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신문에서 토요일자 북 섹션의 전성기는 이미 지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경향신문은 총 8개의 토요일 북 섹션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전면 광고면을 제외한 토요일자 총 지면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 일간지 북 섹션은 3~4면 정도에 그친다. 경쟁적으로 북 섹션 제작에 공력을 들이는 것으로 보였던 3~4년 전에 비하면 최근의 신문 북 섹션은 편집의 흐름에서 방점이 찍히지 않는 듯 보인다.

파격적으로 많은 경향신문의 북 섹션 8면 제작에도 안팎의 저항이 있다. 금요일 발생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 등의 경우 토요일자에 할당된 지면이 적어 기사 처리에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북 섹션은 유지하되 총 지면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작 비용이 상승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북 섹션 담당자 입장에서도 8면 제작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작 기간의 압박이라는 점을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책의 양과 질이 좋지 않으면 제작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지면을 채우기 위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책을 골라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텍스트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기사 작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결국 독자도 불만을 갖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소개할만한 책이 줄어든 것은 일반 교양서적 뿐만 아니라 문학부문의 경우 더 심하다.

지면으로는 독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사는 인터넷에 올라간 뒤에야 댓글 등을 통한 독자의 반응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 리뷰 기사에 독자의 직접적인 반응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간혹 기사에 대한 반응을 접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최근 많이 밝혀지고 있다시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그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출판계 인사나 지인을 통한 반응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을 수 있을 뿐, 토요일자 8개 면을 벌려 북 섹션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반향이 있는 것인지 짐작이 어려울 때가 많다. 종합일간지는 대중과의 소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가끔은 이 북 섹션을 만드는 것이 지나치게 자족적인 것 아니냐는 회의가 들 때도 있다. 가벼워져 가는 독서, 아니 글 읽기 환경에서 비교적 긴 호흡의 북 리뷰 기사는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책 읽는 경향’

경향신문과 독서진흥의 관계를 따질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코너는 ‘책 읽는 경향’이다. 2007년 1월 ‘책 읽기 365’로 시작한 이 칼럼은 토요일자를 제외한 매일 1면에 5매 안팎의 독서 칼럼을 연재하는, 한국언론 사상 유례 없는 시도였다. 이 칼럼은 2008년부터 ‘책 읽는 경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오늘의 사색’으로 다시 바뀌어 명맥을 잇고 있다.

초창기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읽고 성찰하는 풍토가 점점 위축되는 현실에서 ‘책 읽는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이 칼럼은 신문의 지평을 넓히고 개인 차원의 활동인 독서를 사회적 독서로 인식 시키고 읽는 매체가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상상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독서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임을 상기 시켜줬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처음에는 참신했던 시도도 시간이 흐르면 매너리즘이 된다. 칼럼의 내용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책 읽는 경향’의 1면 배치가 당연시되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1면에 배치할 기사가 넘칠 경우 ‘책 읽는 경향’이 2면으로 가는 경우도 흔히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책의 인상적인 구절을 4매 정도 발췌한 후, 필자가 그 책의 선정 이유와 간단한 감상을 1매 정도로 정리하는 형식의 ‘오늘의 사색’으로 바뀌었다. 이 역시 ‘책 읽는 경향’의 매너리즘을 탈피하려는 시도의 일환이긴 하지만, 아직 그 효과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다. ‘오늘의 사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주변의 이런저런 의견을 취합했지만, 지금까지의 형식과 달라 보이면서 읽고 성찰하는 문화의 확산이라는 칼럼 고유의 취지를 고스란히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책 읽는 경향’은 경향신문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같은 상태로는 1면의 ‘계륵’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마치며

경향신문의 북 섹션과 ‘책 읽는 경향’을 중심으로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향신문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인터넷 언론 프레스이안이 파격적으로 많은 분량의 토요 북 섹션을 운영 중이며, 조선일보는 명사들이 선정한 고전 100선을 매주 1권씩 소개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독자들의 독 후감을 받는 등 새로운 기획을 시도하고 있다. 지면을 통한 활자 읽기라는 측면에서 책 읽기와 신문 읽기는 친척 관계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활자 읽기 외에도 온갖 즐길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현재의 상황상 책과 신문이 연합해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하다. 신문 읽기는 책 읽기의 전위에서 있다. ㅁ